

‘그 시절, 그 노래’ 한 해의 추억 따뜻한 선율에 담아

매년 특색 있는 라인업을 자랑하는 송년음악회는 TMO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및 가수 최백호 등이 출연하면서 주목받아 왔다. 올해는 어떨까. 싱어송라이터 김현철과 장필순이 선사하는 주옥같은 명곡들, 보컬그룹 메이트리의 아카펠라 연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충분할 것 같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2024 ACC 송년음악회’를 오는 12월 20일 오후 7시 30분 ACC 예술극장(극장1)에서 펼친다. ACC 누리집에서 오는 22일까지 얼리버드 예매 가능하며 티켓 2차 오픈은 12월 3일 예정.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 그 노래’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공연은 추억이 가득 노래로 채워진다.

1부 막은 영화 ‘라라랜드’의 오프닝 곡 ‘Epilogue’가 울린다. 이어 ‘알라딘’ 주제곡 ‘바람의 색깔’, 영화 ‘시네마 천국’ 중 ‘시네마 천국’ 등이 울려 퍼진다. 원작 영화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OST 또한 대중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1991년 개봉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영화 ‘나 홀로 집에’ 초입에 삽입됐던 ‘Holiday Flight’도 레퍼토리에 있다. 주인공 케빈 가축이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 경쾌한 곡으로 영화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하다.

2014년 세계합창올림픽에서 팝·재즈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2018년 모스크바 아카펠라 페스티

12월 20일 ‘ACC 송년음악회’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주목
싱어송라이터 김현철·장필순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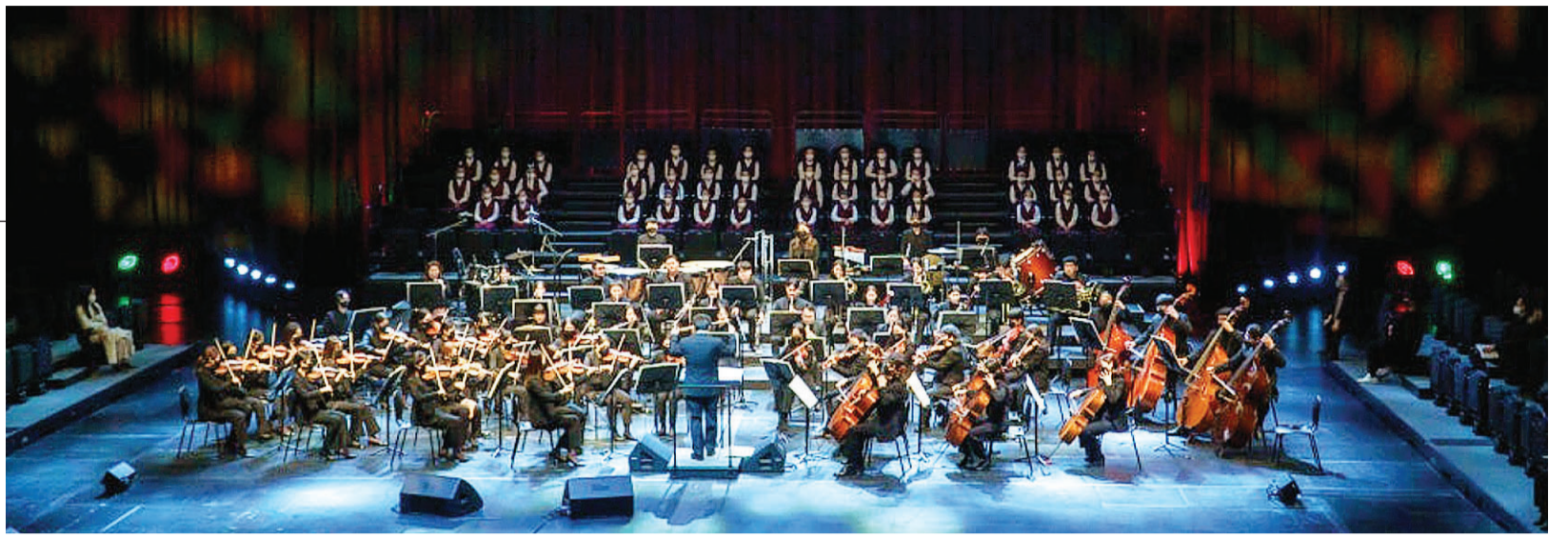


김현철 장필순

발에서 2위를 기록한 메이트리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튜브 구독자 585만명을 자랑할 만큼 환상적인 보컬플레이와 대중성 있는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영화음악 전문 오케스트라 심포닉아르모니아(지휘 김재원)도 주목받는다.

WE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로 구성된 심포니이며 올해 픽사인 콘서트, 히사이시 조를 비롯해 엔리코 모리코네 영화음악 콘서트 등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24 ACC 송년음악회’를 오는 12월 20일 ACC 예술극장에서 펼친다. 지난해 연말공연 장면. <ACC 제공>

관객들에게 존재를 각인시켜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카데미영화제 수상곡으로 앙상블을 꾸려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2부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라인업해 관객을 추억으로 인도한다. 김현철은 ‘달의 물라’, ‘춘천 가는 기차’, 장필순은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제비꽃’ 등을 부른다.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상, 대한민국 영상음악 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석권한 김현철은 89년 ‘춘천 가는 기차’, 93년 ‘달

의 물라’ 등으로 히트곡을 연달아 발표해 왔다.

아울러 제167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한국대중음악 100명반 등에 선정된 장필순도 이목을 끈다. 1989년 1집 앨범 ‘어느새’로 데뷔한 대중음악인으로 대한민국 여성 포크 록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끝나지만 그대는 영원히 나의 가슴에 남아/ 이대로 헤어지지만 우리사랑을 우리사랑을 잊지말기로 해”

두 사람이 부르는 듀엣 무대도 예정돼 있다. 김현

철이 작곡하고 장필순이 작사한 ‘잊지 말기로 해’는 장필순 1집(1989년 발매)에 수록된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 30여 년 만에 재회한다.

ACC 이강현 전당장은 “가슴을 울리는 추억의 음악, 영화 주제곡을 통해 ‘희망찬 새해’를 꿈꾸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ACC가 준비한 특별한 무대를 관람하며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R석 5만 원, A석 2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위도 암발라 바탕 작 ‘Belief and Seeing are Both.’



인도네시아 현대미술과 예술가들

‘검은빛 깊은눈’ 전, 24일까지 예술공간 집

자카르타와 광주는 독재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뜻깊은 경험을 갖고 있다. 1998년 5월, 1980년 5월은 각각의 두 도시 민중들이 연대해 불의와 폭력에 저항했던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작가 4명의 작품을 만나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검은빛 깊은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광주에서 보낸 시간 광주를 바라본 여정을 담고 있다.

전시는 지난 18일 개막해 예술공간 집(대표 문희영)에서 오는 24일까지 펼쳐진다. 예술공간 집, 콜렉티브 오피스(대표 이은하)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루앙매스56, 미로센터, 광주시 동구가 후원했다.

참여작가는 아리프 부디만, 마리안토, 랑가 푸르바와 협력기관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의 루앙매스56의 공동대표이자 작가인 위도 암발라 바탕 등 4명. 당초 이들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구 미로센터의 미로레지던시 기간 광주를 ‘경험’했다.

또한 5·18 기록관을 비롯해 5·18 순례길, (구)국군병원, 5·18기념공원, 5·18민주묘지 옛도청, 광주 기록병원, 전남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광주비엔날레를 포함 양림동, ACC, 광주시립미술관, 예술공간 집, 오버랩, 뽕뽕브릿지, 발산마을, 미로센터 등 예술현장을 방문해 예술가들과 함께했다.

주제인 ‘검은빛 깊은눈’은 젊은 어둠의 빛과 깊은 시선으로 광주를 바라봤다는 것을 은유한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로센터 2층 책방에서 ‘인도네시아의 현대미술과 아티스트 & 광주’ 행사에서 작품세계와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을 소개한 바 있다.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는 “광주에서 머무른 기간은 짧지만 저마다 작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광주는 깊은 사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하나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가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마리안토는 광주의 곳곳을 스케치한 드로잉과 기존 작품들을 함께 선보이며, 랑가 푸르바는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영상작품과 광주에서 촬영한 스냅사진들을 보여준다. 아리프 부디만은 5월 광주와 자카르타 시민들의 기억을 엮은 짧은 영상을 출품했다. 위도 암발라 바탕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집약한 사진 5점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난다.

이은하 콜렉티브 오피스 대표는 “이번 전시는 인도네시아 작가들이 광주의 레지던시를 매개로 작품을 선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광주미술의 지속적 교류로 광주 현대미술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영남, 챔버 오케스트라 선율로 어우러지다

DCH 비르투오소 챔버 with 이진상
2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챔버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매개로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지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DCH 비르투오소 챔버 with 이진상’을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달빛동맹 시리즈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이진상, DCH 비르투오소 챔버, 바이올리니스트 한경진 및 김남훈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스트링 콰텟으로 구성된 브루크너 ‘아다지오 F장조, WAB 112’로 막을 울린다. 브루크너의 아다지오 악장은 ‘영혼의 고백’이라 불릴 정도로 내밀한 구성이 특징적이다.

이어 바흐 ‘피아노 협주곡 4단조, BWV 1052’, 지성민의 ‘파도의 뒷면’을 비롯해 비엔 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11’ 등이 울려 퍼진다.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자체 제작한 DCH 비르



DCH 비르투오소 챔버.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투오소 챔버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들은 2020년 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자경, 타니아 밀러, 최나경, 윤소영 등과 호흡을 맞춰 왔다.

피아노 연주를 맡은 이진상은 2005년 쾰른 국제피아노콩쿠르, 2008년 홍콩 국제피아노콩쿠르 등에서 우승했다. 현재 한예중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 이의 경북대 예술대학 교수인 한경진, 계명대 관현악전공 김남훈 교수 등은 바이

올린을 맡는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WOS 비르투오소 챔버로 활동하다 개칭한 ‘비르투오소 챔버’는 실내악의 매력을 극대화한 레퍼토리로 사랑받아 왔다”며 “그동안 대구뿐 아니라 광주, 서울 등지에서 투어공연을 펼쳐온 이들을 만나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R석 2만 원, S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읍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3일~12월6일 지역문화 교류마당

지금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광주읍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광주읍성의 실존 모습을 그려보고 인근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오형근)은 오는 23일부터 12월6일까지(매주 토요일) 지역문화 교류마당을 펼친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 끼고 아웃사이드’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사라졌던 광주읍성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읍

성 투어 프로그램이다.

당초 재단은 ‘광주읍성 이야기’ 단행본을 발간 해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강좌를 열었다. 책과 강의로만 접했던 사라진 광주읍성의 모습을 투어 통해 실존을 확인하고 상상해보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1차 23일 사천과 진주 등 경남지역 성곽, 2차 30일은 고창과 원주 등 전북 지역 성곽을 둘러본다.

참가자 모집은 선착순 40명이며 희망자는 22일

까지 홈페이지와 전화 접수.

오형근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읍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경남, 전북 등 다른 성곽도 둘러보으로써 성곽의 의미와 용도 등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